

10. 코퍼러티즘 (수능 특강 p.168)

단락 분석

(1단락)

①산업화로 인해 여러 국가에서 고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특정한 관심, 가치를 유지하거나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 전문화된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②이렇게 개인들이 공통의 목표 또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집단을 '이익 집단'이라 한다. ③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다원주의적 입장에서는 사회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라는 전제 아래, 개인 또는 개인의 집합체인 이익 집단의 상호 관계에 의한 사회 구성을 강조한다. ④이러한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을 이익 집단 간의 상호 경쟁과 관계 양상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로 파악하였다. ⑤다원주의적 입장에서 국가는 이익 집단의 이해 관계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이익 집단 간의 타협과 조정의 의하여 형성된 공통 요소에 따라 행동하며 집단 간의 이해 관계나 경쟁을 정책에 반영하기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 ① 산업화로 인한 경제 성장과 함께 조직화, 전문화된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 ② 공통의 목표, 가치 달성을 위해 형성된 집단을 **이익 집단**이라고 정의했어. 이익 집단은 3. 타지펠의 사회 정체감 이론에서도 살짝 다뤘었는데 기억나?
- ③ 한 문장에 **다원주의**에 대한 정보를 3가지나 제시했어. 1) 개인 자유 옹호 2) 전제: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다. 3) 강조점: 개인 또는 이익 집단의 상호 관계에 의해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3)이 살짝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뒤에서 더 설명해줄 수 있으니 체크해두자. 요즘 처음에는 애매하게 설명해주고 뒤에 나오는 문장과 조합 및 추론해서 정보를 재구성 하게끔 요구하는 패턴이 많더라.
- ④ 다원주의 입장에서 국가 정책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려주고 있어. 이익 집단 간의 상호 경쟁과 관계 양상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 해석하기 난해한 정보가 계속 쌓이고 있네. 자꾸 이러면 읽기 싫어지지? 그래도 참고 읽어 내려가자.
- ⑤ 위 문장이 난해하니까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야. 다원주의 입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하고 있네. 이익 집단에 너무 관여하지 않고 이익 집단 간의 이해 관계나 경쟁을 정책에 반영하기만 한대.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보조사 '만'**이 쓰인 것을 보면 '국가가 너무 나서지 않고 대강 반영만! 해준다는 거구나' 하고 문장의 뉘앙스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해. (국어 시험이니까) ④문장과 이어볼까? '국가 정책은 ~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이다.' 라는 문장구조야. '~에 의해'는 원인, 국가 정책은 결과. 인과가 쓰였네? ③문장까지 이어서 생각해볼까? 3) 이익 집단의 상호 관계에 의한 사회 구성 → ④이익 집단의 상호 관계(원인)에 의해 국가 정책(결과)이 나타남 ⑤국가는 이익 집단의 상호 관계에 관여 X, 이익 집단의 상호 관계에 의해 형성된 공통 요소에 따라서 행동, 더 쉽게 말하면 국가가 나서서 이익 집단에 영향을 주지 말고, 이익 집단들끼리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요소들을 정책에 반영하기만 해라!(국가의 중립을 요구한거야)

1단락부터 아주 난해한 단락이야. 보통 1단락이 이런 식이면 '아, 2단락 넘어가면서 이해되겠지. 시간 없으니까 일단 패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빨리 다음 단락으로 내려갈거지? 그럼 계속 이해 못한 상태로 지문을 다 읽고 '아, 망했다'라고 좌절할 위험성이 커...어려운 단락은 다시 요약하면서 처음에 읽을 때는 눈치채지 못했던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다음 단락부터 내용이 연결되면서 독해속도나 문제풀이가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써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급할수록 돌아가야 해!

(2단락)

①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며 인플레이션, 성장의 둔화, 실업률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국가의 통치력이 요구되었다. ②이러한 상황에서 이익 집단들과 국가의 관계를 새로운 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틀로 코퍼러티즘(corporatism)이 주목받게 되었다. ③코퍼러티즘은 정부, 기업(자본가), 노동자 간의 정치적 협상이 사회 갈등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정치·사회 이론으로, 흔히 조합주의로 표현되기도 한다. ④하지만 조합주의라는 표현은 노동조합의 투쟁을 주로 강조하는 생디칼리즘(syndicalisme)과 혼동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코퍼러티즘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한다.

- ① '**하지만**'이라는 역접의 표현으로 2단락을 시작하고 있어.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국가의 통치력이 요구**되었다. 1단락에서는 국가는 뭘 하려고 하지말고, 이익 집단 간의 이해 관계나 경쟁을 정책에 반영하기만 하라고 했었는데, 문제가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문제 해결을 나서서 하라고 하는 거야. 1단락을 자세히 이해하니까 부드럽게 연결되지?

[Legal Mind] EBS analysis

- ② **코퍼러티즘(협동조합주의)**을 제시하고 있어. 이익 집단들과 국가의 관계를 새로운 각도로 분석하게 해준다. 1단락에 소개 되었던 다원주의와는 다른 이론인거야.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공통점, 차이점을 정리**하면서 읽고, 문제 풀 때 바로 풀어버 리자!
- ③ 코퍼러티즘을 독자들이 잘 모를테니까 **정의**해주고 있어.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정치적 협상**을 사회 갈등(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본대. 조합주의라고도 한대. 3.타지펠의 사회정체감 이론에서 노사갈등을 예시로 들었는데...노동조합(노조) 이 대표적인 이익 집단 중 하나야. 그렇게 보면 위 문장은 정부와 이익 집단들 간의 정치적 협상이 사회적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 ①문장을 보면 국가가 문제 해결 주체라고 했으니, 정부가 정치적 협상의 주체 역할을 해야되겠 다고 추론할 수 있겠지? 이번 지문은 문장, 문단끼리 자꾸 이어서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거 같아.
- ④ 조합주의는 **생디칼리즘**과 혼동될 수 있어서, 코퍼러티즘을 제대로 설명하는 용어는 아니래.

(3단락)

①산업 사회 속에서 복잡하게 전개되는 이익 집단과 국가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국가, 자본가, 노동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 이익 집단이 내세우는 이익은 근본적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을 기반으로 형성되지만, 동시에 집단은 개인의 이익을 통제하고 국가와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③이러한 시각에서 사회 구성원 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을 조직하거나 기존의 집단에 가입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이를 관철하 기 위하여 때로는 일부 구성원들의 개인적 이익을 통제하면서까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역으로 정부도 이익 집단으로부터 정책의 입안이나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추진 동력을 얻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④이와 같이 코퍼 러티즘은 이익 집단과 국가 간의 관계를 상호 필요에 의한 일종의 거래로 보는데, 이는 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 이익 집단과 국 가 간 유의미한 정치적 교환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⑤국가는 정책을 입안할 때 해당 정책이 이익 집단들에 유리함이 있을 경 우 정책의 실행을 대표적 이익 집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⑥이는 국가가 직접 정책을 실행하기보다, 구성원 또는 군소 이익 집 단들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을 갖춘 대표적 이익 집단에 의존하는 것이 정책 실행의 측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⑦그러므 로 정부와 협상하는 이익 집단은 동일 범주에 속한 군소 이익 집단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우리한테 **이익 집단과 국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 시키려나봐. 국가, 자본가, 노동자 입장을 모두 고려하래.
- ② 살짝 모순적인 말인데. 이익 집단이 **개인들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형성된 집단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이익 집 단이 **개인의 이익을 통제**하고 국가와 협력할 수 있대.
- ③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 개인은 이익 집단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집단에 가입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때로 는 일부 구성원들의 개인적 이익을 통제하면서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대. 반대로 정부도 이익 집단에게서 정책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추진 동력을 얻는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대. 1단락에서 제시한 다원주의와의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겠어?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정부는 이익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받아 정책을 수립하는 일방향성을 보였는데, 코퍼러티즘에서 정부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익 집단과 **상호 작용**함을 짚어낼 수 있겠어.
- ④ 코퍼러티즘에서 이익 집단과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했어. 상호 필요에 의한 일종의 거래, **유의미한 정치적 교환 과정**으로 볼 수 있대.
- ⑤ 국가가 정책을 입안(안을 세우다)할 때 **정책 실행을 대표적 이익 집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대. 지문에서 예시까지 들어주 면 좋겠지만 정치 지문은 예시 드는 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예시 없이 이해해야할 수도 있어. 외국이나 가상의 상황으 로 예시를 들어도 혹여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생겨서...ㅎㅎ
- ⑥ ⑤문장의 이유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 (~때문이다.) 대표적 이익 집단에 의존하면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대. 대 표적 이익 집단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정의하고 있네. 집단의 구성원(개인) 또는 소규모 이익 집단들에 대해 통제력을 갖춘 집 단이래. 쉽게 말해 힘이나 입김이 썩 집단! 우리나라에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의사협회,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대표적 이익집단이 많이 있어.
- ⑦ 정부와 협상하는 이익 집단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대표적 이익 집단이어야 한대. 영향력이 큰 집단과 협상해서 정책을 실행한다고 요약할 수 있겠어.

(4단락)

①코퍼러티즘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이익 집단이 모두 일종의 제약 아래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정치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전제한다. ②이익 집단은 논의가 결렬되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할뿐 아니라, 국가가 자신들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힘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③또한 국가는 사회 각 분야의 이익 집단의 도움이나 합의가 없이는 해당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정책적 동력이나 전문 지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④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교환을 위해 국가는 자본가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집단과의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대표적 이익 집단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익 집단들의 조직화와 서열화를 지원하기도 한다. ⑤이를 통해 국가와 이익 집단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사회 전체의 통합,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이 코퍼러티즘의 핵심이다.

- ① 코퍼러티즘의 **전제**를 얘기하고 있어. 국가(정부)와 이익 집단이 **상호 동등**한 관계라고 전제한다. 갑자기 이 전제는 왜 얘기하는 걸까?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가자.
- ② 이익 집단도 너무 막나가면 결국 자신들의 이익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어.
- ③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익 집단의 도움 없이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한 동력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 ④ 그러니 국가는 이익 집단(자본가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집단)과 **상호 협조적 태도**를 바탕으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이익 집단들의 조직화, 서열화를 지원하기도 한다. 서열화에 대해 더 이해해보자면, '이익 집단 간 서열화가 잘 되어있으면, 대표적 이익 집단이 서열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갖추기 수월하기 때문이겠구나.' 라고 3단락 ⑦문장과 연결지어 추론할 수 있어. 어렵지 않지?
- ⑤ 위에서 제시한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통해 **국가와 이익 집단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서(2단락 ①문장을 다시 보자.)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 코퍼러티즘의 핵심이래.

다시 4단락을 보자. **상호 동등, 상호 협력**이 4단락의 키워드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지? 2단락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문제 해결 주체로서 통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만 단순히 국가가 이익 집단을 통제하고 국가 위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이익 집단이 상호 협력해서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코퍼러티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

구조도 정리

국가와 이익 집단에 대한 관점		
다원주의	발생 배경	산업화 → 고도 성장 → 이익 집단 형성
	전제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
	핵심	개인 또는 이익 집단의 상호 관계에 의한 사회 구성
코퍼러티즘	발생 배경	산업화 → 여러 사회적 문제 발생
	전제	국가와 이익 집단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정치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관계
	핵심	국가와 이익 집단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 사회 전체의 통합,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

배경지식 더하기

코퍼러티즘 (협동조합주의)

혹시 1단락 ①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지는 않았어? 산업화로 인해 조직화, 전문화된 집단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 사실 산업화 이전 중세 사회에도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있어. 바로 길드(조합)! 코퍼러티즘의 근원을 중세 '조합'에서 찾을 수 있대.

기존의 다원주의나 신마르크스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코퍼러티즘이 알려지게 되었어. 다원주의는 국가를 중립적으로 여겼고, 신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자본가를 위한 도구일뿐이라고 보았는데 산업화 이후 점점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기 시작한 거지.

하지만 코퍼러티즘에도 비판점이 있어. 일례로 1960~7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빠른 경제 개발을 추진할 목적으로 이익 단체의 활동을 허가하거나, 직접 만들어냈고, 이렇게 정부를 배후에 둔 이익 단체들이 집단 구성원들이나 소속된 군소 집단에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렇게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코퍼러티즘을 국가 주도 코퍼러티즘이라고 한대.